

홍보배 연구원

요약

미국 건강보험시장의 2023년 보험료가 평균 약 10% 내외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발표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건강보험료 인상의 배경으로는, 가파른 인플레이션에 따른 의료 부문의 비용 상승,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의 의료 이용 증가, 정부 정책 변화 가능성 등이 제시됨. 해당 주(州) 보험청은 보험회사가 제시한 보험료 인상의 합리성을 평가하기 위한 검토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 2023년도 건강보험료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임

- 미국은 각 주(州) 보험청이 건강보험¹⁾ 요율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매년 정해진 기간(상반기 경)에 다음 해의 건강보험료 조정 예상 자료(health insurance rate filings)를 해당 주 보험청에 제출하여야 함²⁾
 - 건강보험료 조정 예상 자료는 다음 해의 건강보험료 조정 수치 이외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배경(비용 증가, 경제환경 및 법·규제 변화 등) 자료 및 데이터를 함께 제시해야 함
 - 주 보험청은 보험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을 검토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제시한 보험료 조정이 적절하다고 평가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 요율 조정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음
- 최근 미국 보험회사가 제출한 2023년도 Affordable Care Act 건강보험시장³⁾의 보험료(이하, 'ACA 건강보험료'라 함) 조정 예상 자료 분석 결과, 평균 약 10% 내외에 해당하는 큰 폭의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제기됨
 - 지난 몇 년간 ACA 건강보험료는 큰 폭의 인상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음(그림 1) 참조)
 - 주(州)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1~2022년에는 다수의 주에서 보험료가 낮아졌음⁴⁾
 - 그러나 최근 발표된 2023년 ACA 건강보험료 조정 예상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는 평균 약 10% 내외의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었음⁵⁾
 - 총 13개 주(州) 72개 보험회사 중 68개 회사가 보험료를 인상하겠다고 하였으며, 이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36개 회사는 0~10% 인상, 15개 회사 10~15% 인상, 9개 회사 15~20% 인상, 20% 이상의 인상을 제시한 보험회사도 8개에 달함(그림 2) 참조)

1) 개인, 소규모 그룹 건강보험상품(individual and small group health insurance plans)만 해당함

2) California Department of Insurance; https://interactive.web.insurance.ca.gov/apex_extprd/f?p=102:2:0::NO

3) 오바마케어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을 온라인 등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건강보험시장(ACA marketplace/exchange)이 설립되었고, 연방 정부 또는 해당 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의 수입에 따라 보험료 보조를 일부 받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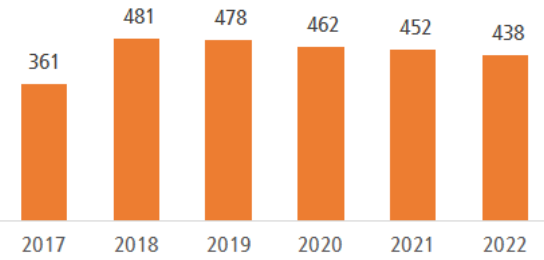
4) 캘리포니아주 ACA 건강보험료(Average Benchmark Premium)는 2020년 \$430에서 2022년 \$417로, 뉴욕주는 \$610에서 \$592로 감소함

5) Kaiser Family Foundation(2022. 7), "An early look at what is driving health costs in 2023 ACA markets"

- 각 해당 주 보험청은 보험사가 제출한 보험료 인상의 합리성을 평가하기 위한 검토 과정(review process)을 진행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3년도 ACA 건강보험료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임⁶⁾

〈그림 1〉 미국 ACA 건강보험료 추이(2017~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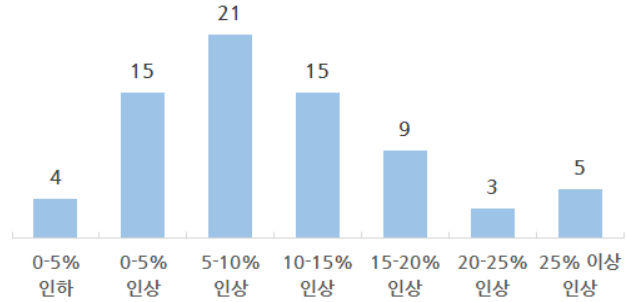
(단위: USD)



주: 미국 전체 평균 벤치마크 보험료(월별)임
자료: Kaiser Family Foundation

〈그림 2〉 2023년 미국 ACA 건강보험료 인상(인하) 전망

(단위: 개)



주: 총 13개 주(州), 72개 건강보험회사 자료임
자료: Kaiser Family Foundation

○ 미국의 이러한 ACA 건강보험료 인상 전망의 주요 요인으로 ① 가파른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상승, ② 보험 가입자의 의료 이용 증가, ③ 정부 정책의 변화 가능성 등이 제시되었음⁷⁾

- 2022년 7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8.5% 상승하며 약 40년 만에 최고치인 6월의 9.1%보다는 다소 상승폭이 둔화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미국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경제 전반의 인플레이션이 보건·의료 부문, 특히 노동, 약제비용 등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2023년도 의료서비스 비용이 평균 약 4~8%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 그동안 코로나19로 미루어왔던 소비자의 의료 이용이 회복되면서 보장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함
 - 특히 코로나19 이후 미국에서는 정신건강 관련 의료 이용(mental health utilization)이 크게 늘어나 2019년 총 외래 이용자의 4% 수준에서 2021년 8%로 2배 높아졌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⁸⁾
 - 코로나19 관련 질환의 치료 비용은 감소 추세이지만 부스터샷 등 백신·예방 관련 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제시함
- 보험회사들은 2021년 미국 구제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에 따른 건강보험료 보조금(subsidies) 지원 정책⁹⁾이 2022년 말 만료 예정임에 따라, 관련 정책의 연장 여부가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함
 - 그러나 지난 8월 17일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에 ACA 건강보험료 보조금 지원을 2025년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이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될 것으로 보임

6) CNBC(2022. 6. 27), "Health insurance premiums poised to jump next year for 13 million people unless Congress extends expanded subsidies for marketplace coverage"
7) AP(2022. 7. 20), "US health insurers raise rates to match increase in usage"
8) American academy of Actuaries(2022. 6. 22), "Possible Expiration of Pandemic-Era Measures Among Drivers of 2023 Health Insurance Premium Changes"
9)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의 건강보험 지원 정책 중에 하나로 ACA 건강보험시장에서 보증을 구매할 경우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정부 또는 주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임